

# 군산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선형공원 설계

박만식\* · 조경진\*\*

\*(주)조경설계 서안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I. 서론

산업유산은 근대기에 형성된 산업시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산업과 관련된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해당 산업시설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장주은과 강동진, 2008). 사람들이 떠나버린 황폐함과 오래된 건물 그리고 세월의 녹이 두텁게 쌓인 시설들은 도시의 애틀단지로 인식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유산들은 역사와 장소적 기억을 담고 있는 개체로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의 의미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에서 특히 선형의 형태적 특성을 가진 철도폐선부지는 그 형태적인 특성으로 인해 점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산업유산과는 달리 도시의 전체를 가로지르며 도시의 곳곳을 연결하며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 단면을 경험하게 하고 도시의 확장과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RTC(Rails to Trails Conservancy)에서는 이러한 폐지된 철도노선의 재활용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며, 폐철도부지에 건설된 다목적, 다기능의 시설들은 도시의 녹지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이동성 등, 2005).

특히, 폐철로를 활용한 선형공원은 현대의 도시 속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적 공원의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선형구조의 오픈스페이스의 창출은 뉴욕이나 보스턴, 밴쿠버, 싱가포르, 상해 등 해외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은 국내의 많은 도시들에서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동시대적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선형구조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즉, 선형공원(linear park)은 대규모 공원에 비해 부지 확보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 선적인 형태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에 보다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 즉 도심에서 떨어진 초대형공원보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가로공원이나 하천공원이 생활밀착형 공간이 되기 쉬운 편이다(남기준, 2007).

국내에서도 많은 곳에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공원화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노력과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군

산이라는 도시를 사례로 선형공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도시 가독성(Urban Legibility) 증진 수단으로서 선형 공원의 가능성

### 1. 선형공원

선형공원은 아직까지 용어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상태의 선형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Liner Park"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폭에 비해 그 길이가 길다고 여겨지는 통상적인 형태의 공원을 의미한다. 선형공원은 접속성, 연속성, 관통성, 근린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이런 성질은 대부분 선형의 형태적 특징에서 기인한다. 선형공원은 강, 도로, 철로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그림 1 참조).

밀도 높은 현대도시에서 선형공원은 도시를 관통하여 도시와 접속하고, 도시로 침투하는 대안적 공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배정환, 2007). 특히, 선형공원은 도시와 연결된 다양한 장소와 지역들 사이를 잇는 여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이자 통로이며, 동시에 공원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유용한 공간이며 또한 모든 장소로부터 가장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지니는 공간이다(Javier Gonzalez Campaña, 2003). 이 공원은 도시를 가로지르며 형성되어 도시의 화려한 곳, 낙후된 곳, 잘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지나며 도시의 단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 장소가 아닌 도시의 다양한 장소와 경관을 체험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특히 폐선을 이용한



그림 1. 선형공원의 유형

선형공원은 형태적 특징과 함께 폐선이 가지는 도시산업적 조건이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2. 도시 속의 선형공원이 가지는 가능성

중심성을 잃어버린 구도심의 지역성을 회복하는 것은 체험의 의외성, 생산성 등과 같은 매력을 제공하고 있는 구도심의 매력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서 시작한다. 때문에 군산처럼 과거의 흔적과 유산이 남겨진 채로 쇠퇴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의 확장과 재생을 위해 도시가득 성을 높이는 일은 중요한 이슈이다

서울의 오래된 도시인 종로는 강남 같은 신도시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져서 길에 찾기 불편함을 종종 겪게 된다. 매력적인 시간의 흔적과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체험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오래된 도시의 구조와 문화계 등으로 인해 과도한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 문화재는 단순한 보존의 차원을 위한 소극적 대상이 된다.

때문에 가독성을 높여 사람들의 체험을 용이하게 하고,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은 장소의 지역성을 회복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edge를 단순히 공간을 구획하는 도시의 경계부로서 언급하였지만, 최근의 추세는 오히려 폐선 부지나 청계천 같이 하천의 재발견으로 인해 사람들이 선형 체험 공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히려 구도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만남의 지점이 되는 등 공간의 인지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의 흔적을 훼손하지 않으며 도시의 가독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선형의 공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선형 오픈스페이스의 특성은 구도심 활성화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스케일을 통해 도시 전체의 인지 맵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한다.

## III. 군산 도시 가독성 증진을 위한 폐철도 부지 설계

### 1. 기본 방향

#### 1) 군산시 개요

군산시는 과거 일제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식민지적 근대성에 대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다. 서해안을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일제시대 미곡을 실어 나르던 대표적인 항구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는 일제시대 때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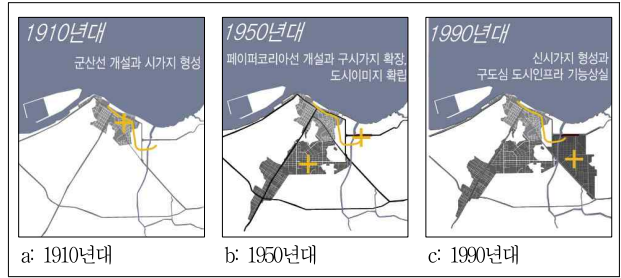


그림 2. 군산의 발전과정

대이후 도시가 확장되고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도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과거 생활 터전이었던 해안지역은 현대에 와서는 그 기능을 상실해 도시 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였고 과거 도시를 움직이던 기반시설들은 도시 확장과 함께 이전되고 그렇게 되면서 과거 구도심지역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게 된다(그림 2 참조).

현재 내항으로부터 시작되는 철도를 중심으로 내항과 함께 남아 있는 철제공장들 그리고 철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과 주거지, 텃밭, 그리고 시장들은 각기 다양한 과거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 장소들은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며 독특한 경관을 지니게 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과거 내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은 도시의 확장과 발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점차 옮겨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의 구조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폐철로가 지나는 군산의 구도심은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과 함께 역사문화적인 매력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속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2) 구도심 활성화의 수단이자 도시 체험의 시작점

이런 상황에서 현재 폐철로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대한 관



그림 3. 철길주변현황

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도시의 규모가 크지 않은 조건하에서 군산의 폐철로는 구도심의 개발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구도심의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 존치와 제거의 이런 이유 때문에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이나 파리의 프로메나드 플란띠(Promenade Plantee)처럼 철거와 보존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사례 대상지역은 군산시 중 이러한 문제가 최근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내항부지 인근으로, 군산선과 옥구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현재 이전한 군산역 부지와 작년에 운행을 멈춘 페이퍼 코리아선 노선 일대이다. 철도라는 강한 경계선 때문에 도시는 쉽게 인지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능이 멈춘 철도 부지를 역으로 이용하여, 군산의 구도심을 군산 도시체험의 시작점으로 만들고, 군산이라는 도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군산 도시 가독성 증진을 위한 설계의 컨셉(Concept)

본 설계에서는 대상지의 시간성 즉, 시간에 대한 흔적(memory)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흔적에 새로운 계획(invention)을 가미함으로써 도시의 새로운 공간이 되도록 한다.

과거의 역사와 시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대상지를 통하여 장소의 시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유산들이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도시의 확장과 변화되는 구조 속에서 도시의 가독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유물은 군산이라는 도시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담아내며 시대를 따라 작동하는 역할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위해 이 장소가 가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대상지의 경관과 요소들을 가능한 보존하되, 선택적 존치와 용도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1) 시간의 흔적

흔적이란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 일부 또는 전부가 남아 있거나, 또는 지금은 없으나 현재에도 있음의 자취가 남아 있는 것이다. 시간의 흔적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먼저 과거의 흔적을 가진 경관을 통해 시간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현재 장소가 가진 경관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경관의 특성에 따라 대상지를 구분하였다. 내항으로부터 시작하여 구군산역까지 이어지는 선형의 폐철로를 따라 형성된 자연스러운 모습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장치이다.

그리고 현재상태의 보존을 위해 철길과 접한 주거지의 저층부를 공공을 위한 장소로서 전환하고, 주거민의 활용을 위한 공간은 2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과거의 흔적을 유지하고 동시에 또 다른 시간의 켜를 쌓으므로 중첩을 통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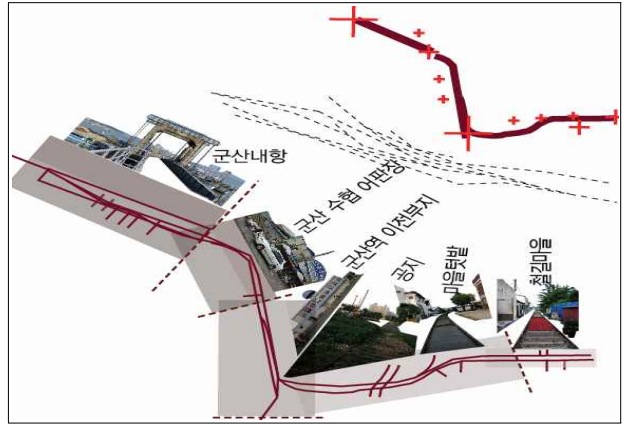


그림 4. 시간의 흔적에 따른 경관의 다양성

간성을 계속되게 한다. 또한 시간은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디자인으로 드러내어 철도 지지목의 폭을 조절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식물을 통한 시간성의 구현을 위하여 구역을 설정하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모습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 2) 가독성(Legibility) 증진의 수단, 관통성(Penetrability)과 접속성(Accessibility)

다양한 계획에 의해 새로운 구조로 변화해가는 도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철도가 가지는 선형공원의 특징인 관통성과 접속성을 활용하였다. 도시를 직접적으로 관통하면서 동시에 밀접하게 접해있는 선형은 통로이자 동시에 기준으로 활용한다. 도시를 관통하는 이 선형의 공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다른 장소에 대한 정보와 인지를 얻게 된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와 기존의 도로망이 교차하는 절절점에 미디어 폴, 컬러를 통해 방향을 나타내는 벽, 안내 맵 등의 장치를 함으로서 방향과 지역을 찾기 쉽도록 하고, 유물



그림 5. 마스터 플랜



그림 6. 부분스케치

a: 식물을 통한 시간의 흔적을 보여준다.  
 b: 철로와 교차하는 도로가 이루는 결절점에 미디어폴

표 1. 프로그램

	군산내항	군산역	마을터발	철길마을
프로그램	해변산책로 레일바이크 수변광장	시간의 숲 오픈마켓 나눔의 열차	터발가꾸기 마을체험	갤러리 포도전시회 카페테리아

을 활용하여 장소의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최종 구상안은 다음과 같다.

또한, 선형을 따라 나타나는 각기 다른 다양한 경관과 요소들을 통해 장소성을 강조하여 나타냄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기억되기 쉬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3) 구역별 특성(Identity)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관적 특성과 장소적 차별성에 따라 터발 가꾸기, 해변 산책로, 시간의 숲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방문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독창적인 체험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자연스러우며 쉬운 접근을 통해 선형의 공원을 거닐며 시민들은 군산의 다양한 단면을 체험할 수 있다(표 1 참조). 선형공원을 따라 계획된 프로그램은 접촉해 있는 주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어 또 다른 장소성을 가지게 한다.

## IV. 결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도시 속의 선형공원은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점점 밀도가 높아지는 도시의 사이사이를 가로지르며 도시의 구석구석 까지 깊이 관계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청계천이나 하이라인 그리고 경춘선 등 이미 많은 선형공원은 우리의 주변 가까이에 자리 잡으며 매력적인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자칫 획일적인 녹색의 띠로서의 공원은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선형공원의 활용에서 보여지는 비교적 보편적인 휴식과 위락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확장하여 군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며 도시의 미래 발전과 과거 그리고 현재를 잇는 가교로서 선형공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철도폐선부지가 갖는 시간성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도시의 가독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군산 속의 선형공원은 시간의 쉼을 담은 도시의 흔적을 간직한 채 공원으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확장해가는 도시의 인지맵으로서 기능을 부여받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도시의 대안적 공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형공원의 또 다른 활용가치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 인용문헌

1. 남기준(2007) 지금, 여기의 조경,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파주: 도서출판 조경.
2. 배정환(2007) 청계천은 공원이다. 조경의시대, 조경을 넘어. 도서출판 조경. p. 108.
3. 이동성, 박상희, 이흥렬(2005)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4. 장주은, 강동진(2009) 산업유산으로서 철도교통시설의 영역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 Javier Gonzalez Campaña(2003) From Promenade Plantee to the New York High Line.
6. Mugavin, Damien(2004) Adelaide's greenway: River Torrens Linear Park.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8.
7. Sundström, Emma(2004) The Restoration of Norr Mälarstrand: A Linear Park of the Stockholm School. Garden History 32(2).